

## 科學의 眞正한 方法論(二)

裴相河君의 理論을 批判함

柳春海

-現代의 모든 懷疑主義를 오로지 『맑스』主義에 對한 懷疑 또는 反感이라고 하는 極端論은 誤解이다. 『맑스』主義의 反인 資本主義에 對한 懷疑 또는 反感이라고도 할 수 있다. -(前記 添言에서)

君은 모든 것-研究의 對象이 될 만한 것-을 研究하려 할 제, 懷疑論的 方法으로 自發的 主觀論的으로 着手한다는 것이 아니냐? 萬一 그러다면-(事實로 君은 肯定한다. 君의 方法論이)-客觀的인 君의 研究對象은 君의 主觀의 規制를 受하여 觀念論的 形而上學的으로 君의 獨特한 定義로 그 對象을 說明 할 것이다. 그리고 萬若 百名이 모다 그러케 한다면 同一한 對象에 對하여 各種의 定義와 說明이 唱導될 것이다. 모든 主觀-各種의 主觀이 對象의 外皮에 沈澱될 것이다. 그런 故로 君은 資本主義에도 懷疑하자고 부르지즈며 심지어 地動說에까지도 懷疑하자고 부르지즐 것이다.

우리는 如何한 것이든지 研究 할 새에는 第一로 對象의 諸 方面, 諸 緣結及 媒介를 把握 探究하라고 努力하여야 한다. 諸般現象과 事物의 變遷運動은 多方面性인 同時에 相互關聯의 關係에 進行되는 것이다. 第二로 對象을 그 自身의 發展에서 卽, 自己運動에서 把握하여야한다. 第三으로 實踐 全體는 眞理의 規準이 되어서 對象의 完全한 定義 中에 取入되어야한다. 最後로 眞理는 抽象的이 아니고 恒常 具體的이라야만 한다.

以上에 列擧한 것은 우리의 方法論으로서 最善한 것이다. 勿論 나는 이 方法論으로 過去, 現在 及 將來의 모든 것 絶對的 眞理를 說明하라는 極端論者는 아니다. 勿論 萬古未來의 연금불변의 絶對的 意義를 具備한 眞理를 言盡 할 수는 업는 것이다. 다만 眞正한 方法論은 우리에게 絶對的 眞理-完全-에 向하는 方向과 持續性과 關聯을 줄 뿐이다. 그러나 이 方法論은 우리가 誤謬와 硬化에 빠지는 것을 充分히 防止 할 뿐더러 도리혀 우리는 無限으로 完全에 接近 到達 할 수가 잇는 것이다. 마치 數學의 無限大가 方向을 指示하는거와

가티 그러나 觀念論者는 恒常 固定的이고 (다만 『헤-겔』을 除外)精的이고 主觀的이고 非具體的이다.

君은 懷疑主義가 맑스主義에 對한 懷疑 또는 反感 뿐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말 조차 君은 君 自身이 反 唯物論的인 것을 表明한다. 著述한 바와 가티 理論과 (方法論을 包含)實際는 觀念論者와 가티 □□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맑스主義에 잇서서는 理論이 現實 그것을 意識에 反映하여 對應的으로 發生된 後 또 다시 現實 그것에 反作用하는 故로 理論과 現實은 不可分離의 關係에 잇다. 그러나 懷疑論과 맑스主義와의 關係는 如何한가는 君위 名哲한 頭腦에 맞긴다. 또 다시 君의 말을 引來하자.

-『懷疑主義 批判』이 經驗에서 생겨난 經驗論이 아니오, 한 개의 原理를 提供하는 原理的 方法論이라 함이니... 兩 君이여! 이곳에 깊히 생각 할 必要가 잇지 안흔가?...